

# 부처님의 본뜻은 목숨을 내던진 곳에 있다

## 백장사(1)

의춘에서 곤고고속도로(昆高高速公路)를 타고 동진하다가 신여(新余)에서 무길고속도로(武吉高速公路)를 바꿔 타고 북진하여 의풍(宜風)에 닿았다. 황벽사와 동산사, 동고현(洞高縣)에 소재한 백장사를 순례하기 위해서였다.

의풍에서 1박 하고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선다면 오전에 황벽사와 동산사, 그리고 오후에는 백장사를 참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전과 오후 일정을 바꾸어도 상관없는 일이다. 일행은 지금 중국인 길잡이를 따라 백장사로 가는 길이다. 의풍에서 동고현까지는 포장도로였지만, 백장산빈관(百丈山賓館)에서 국수 한 사발로 점심을 해결한 동고현을 조금 지나니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다. 중국의 빈관(賓館)은 호텔을 말하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의 음식점을 중국식 관습대로 지나치게 과장한 상호이니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산은 금세 험준해진다. 순례자 일행이 탄 미니버스도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차장 너머는 천 길의 낭떠러지다. 원래는 별목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낸 임도(林道)라고 한다. 이런 길이 백장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 잠시 상념에 잠겨 있는데, 고갯길 옆에 '백장청규 발상지'라는 표지석이 보인다.

산봉우리들이 비죽비죽 연달아 있지만 무슨 산맥인지는 알 수가 없다. 무심코 산의 정상들을 보고 있자니 산맥(山脈)과 법맥(法脈)에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 흥미가 생긴다. 산봉우리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산맥이 될 수 없듯 법맥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스승과 제자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인연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법맥도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경(經)은 서당, 선(禪)은 백장

### 남전은 물외(物外)에 초연하구나

마조 대사의 법맥은 서당 지장(西堂地藏:738-817)에서 신라 도의, 백장 회해(百丈懷海:749-814)에서 위산과 황벽, 남전 보원(南泉普願:748-834)에서 조주로 이어지고 있는바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없다면 법맥은 쇠퇴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서당과 백장, 남전을 수많은 마조대사 문도 가운데 삼철(三哲)이라고 칭송하지 않나 싶다.

마조 문하의 삼철은 그 스승과 그 제자답게 <사가어록>이나 <조당집>에 수많은 선화를 남기고 있다. 한두 가지 선화를 예화 삼아 그분들의 독특한 선풍을 떠올려본다. 하루는 마조의 수제자인 서당과 백장, 그리고 남전이 마조를 따라서 달맞이를 나왔다. 달빛이 환하게 내리비치고 있을 때 마조가 입을 열어 세 사람의 경지를 시험해 보았다.

"바로 이런 때가 어떤 때인가?"

서당이 먼저 말했다.

"공양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남전은 말없이 옷깃을 확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자 마조가 나직이 말했다.

"경(經)은 서당의 것이고, 선(禪)은 백장의 것이고, 남전은 오직 물외(物外)에 초연하구나."

다분히 남전을 치켜세우는 선화이지만 수행자라면 경과 선과 물외의 이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을까. 마조가 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

"차 한 잔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먼저, 서당이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3세 때 임천(臨川)의 서리산(西裏山)에서 마조를 시봉하였으며 다시 7년이 지난 뒤 스승의 법을 받았는데, 마조가 임적인 뒤에도 넉넉한 인품을 지닌 그의 가르침을 좇아 대중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한다. 특히 그의 제자 가운데는 신라에서 온 스님들이 많았다. 신라 출신의 도의(道義), 홍척(洪陟), 혜철(惠

백장사 천왕전에 이르러면 연못의 돌다리를 건너 너른 마당을 걸어야 한다.



徹)은 서당에게 심인을 얻어 국내로 돌아와 가지산 보림사, 실상산 실상사, 동리산 태안사를 창건하고 그들의 선문(禪門)을 개창하여 신라에 서당선(西堂禪)을 꽃피우게 했던 것이다.

도이는 784년에 당나라로 건너가 오대산으로 갔다가 광부의 보단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다시 조계로 가 육조의 영당을 참배한 뒤 서당을 참배했다고 한다. 서당의 법을 받고서야 명적(明寂)이란 자신의 법호를 도의로 바꾸었으며, 서당뿐 아니라 백장의 가르침도 깊이 받았다고 전한다.

도이가 마조에게 물었다.

"일체 분별도 미치지 않고, 억지도 딱 끊어진 자리에서 달마의 종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조는 대답을 제자들에게 미루었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 서당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도이는 곧 서당에게 가서 물었다. 그러자 서당이 정색하며 말했다.

"정말로 마조 스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던가."

"마조 스님께서도 스님께 여쭙보라고 하셨습니다."

서당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오늘은 골짜기가 아파서 그러니 백장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백장도 대답을 피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는데."

결국 도의는 마조에게 다시 갔다. 마조는 저울질하다가 골짜기 아프다고 한 서당과 단번에 모르겠다고 한 백장의 대답을 도의에게 전해 듣고는 말했다.

"장(藏, 서당의 머리는 회고, 회(懷, 백장)의 머리는 검다."

검은 머리의 흑두(黑頭)와 흰 머리의 백두(白頭)에 대한 얘기가 북건성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른바 흑두백두(黑頭白頭) 고사이다. 고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다. 후백(候白)과 후흑(候黑)이라는 두 산적이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갔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울고 있었다. 여인을 먼저 본 후흑이 후백에게 말했다.

"후백, 이 여인이 우물에 귀고리를 빠뜨렸다고 하는데, 귀고리를 건져주면 귀고리 값의 반을 준다고 하니 자네가 건져보지 않겠나?"

후백은 후흑에게 건진 귀고리를 자신이 갖겠다고 말하며 옷을 벗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후흑은 귀종품이 든 후백의 옷과 여인을 데리고 도망쳤다. 이 고사만으로 평가한다면 여인을 차지한 후흑이 고작 귀고리를 건진 후백보다 점수를 더 쥐어 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 마조가 후백과 후흑의 고사를 빌어 얘기했는데, 번역자가 후(候)와 두(頭)의 북건성 발음이 비슷하여 흑두와 백두로 바꾸어버렸다고 지적하지만 중국어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마조가 고사를 빌어 얘기했다면 백장의 경지가 서당보다 높다는 것이 된다.

## 깨달음 이룬 마조대사가 벽지불의 예경을 받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핵심은 아닐 것 같다. 달마의 종지를 스스로 체득하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석두의 선화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어느 학인이 석두에게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석두가 말했다.

"밖에 있는 말복에게 물어 보거라."

학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석두 역시 같은 말을 했다.

"나도 잘 모른다."

마조가 서당을 시켜 혜충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서당은 혜충을 보게 되었는데, 혜충은 마조의 제자인 서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대의 스승이 무엇을 가르쳐 주던가?"

마조의 가풍을 보여 달라는 말이었다. 서당은 말없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 멈추었다.

"겨우 그것뿐인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그러자 서당은 동쪽으로 가 섰다.

"그것은 마조 스님의 것이고, 그대의 것은 어떤 것인가?"

서당이 통명스럽게 말했다.

"밭서 제 것을 다 보셨을 텐데요."

마조와 백장 사이에도 선화가 많았다. 어느 날 마조를 시봉하던 중에 백장이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의 목숨을 내던진 곳!"

백장이 전좌 소임을 볼 때였다. 한 학인이 사시불공이 막 끝났을 때 절로 들어왔다. 그 학인이 마조에게 예를 갖추며 인사했다. 마조가 학인의 행색을 살피더니 물었다.

"어젯밤은 어디서 지냈는가?"

"문 앞에서 지냈습니다."

법도가 엄한 절에서는 어떤 객승도 밤중에 출입하지 못했다. 눈보라 치는 겨울에도 절 담벼락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다음날 일과가 시작하면 산문을 들어와야 했다.

"밥은 먹었는가?"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양간으로 가 밥부터 먹는 게 좋겠구먼."

대중의 공양 전반을 담당하던 백장은 그 학인을 만났다. 백장은 공양이 부족하므로 자신의 밥을 때어 그 학인에게 주었다. 잠시 후 법당에 들어온 백장에게 마조가 물었다.

"조금 전에 한 종이 공양을 안 했다고 하기에 보냈는데 어찌 했는가?"

"제 먹을 것을 때어 주었습니다."

"자네는 큰 복덕을 지녔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그 중은 벽지불이었어."

백장이 놀라며 물었다.

"인간이신 스님께서 어찌 벽지불의 예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통은 나보다 뛰어나지만 깨달음으로 말하면 나보다 못하지."

산 정상을 내려가자 분지가 나타난다. 농부들이 계단식 논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영락없이 우리네 농촌과 흡사하다. 1000년 전 호미를 들고 대중과 함께 울력하던 백장의 모습이 그려진다. 논밭이 위산보다는 다소 좁고 가파르지만 그래도 백장사의 대중들이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했음직하다. 복원하고 있는 절은 구중궁궐 같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웬지 비어 있는 느낌이다. 백장이 환상한다던 무어라 경책할지 씁쓸하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梵鐘名家 聖鐘社

##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어. 혼을 던져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저지 전주부리만큼이나 바빠!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옷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표: 범산 원광식 (종묘유형문화재·대인민국 명장)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